

# 전주 항공대대 이전 가속화 전망

## 서울행정법원, 반대주민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행정지신청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기각돼 항공대대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건이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역인 도도마와 및 인근 주민들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지난 2월 각각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이 신청한 두 건의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해 지난 2월 23일과 3월 24일 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건이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역인 도도마와 및 인근 주민들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지난 2월 각각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중에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준비해왔다.

이번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반대한 주민들의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달 말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현장사무실 신축과 사업부지의 펜스 설치, 가설공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전공사에 돌입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35사단 이전과 함께 추진한 항공대대 이전 부지는 당초 강제신공항 부지를 검토했으나 2008년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2011년 국방전문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작전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임실6탄약창과 완주군 하리, 전주시 도도동 등이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35사단이 이전하는 임실6탄약창으로 항공대대 이전을 추진했으나 임실군 지역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항공대대 이전 반대를 고수하는 임실 지역민들의 반발에 막힌 전주시는 제3의 후보지를 물색,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두 곳에 대해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의뢰, 도도동이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

## 생활고에 전자제품 매장 상습절도 20대 검거

생활고에 지쳐 전자제품할인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훔쳐 팔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전주 일대 대형마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47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전기밥솥 2개(136만 원)를 훔치는 등 총 7회에 걸쳐 전주시내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416만원 상당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주시내 대형 전자제품매장을 돌며 점원이 자리를 비운

계산대에 전기제품을 놓고 계산대 밖으로 빠져나가 다시 전자제품만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훔친 전자제품을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하려다가 인터넷에 올리면 범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친구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주시내 대형 마트와 전자제품 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진수 기자

## 도내 첫 음주운전 방조죄 30대 남성 입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익산경찰서는 17일 술자리를 함께 한 동료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12시3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자리를 함께 한 동호회 이모(31)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 동호회 회원으

로 함께 술을 마신 뒤 김씨가 이씨에게 차량 열쇠를 건넸고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202%의 만취상태로 약 2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던 중 차량 소유주가 다른 점을 수습하여 여러 수사를 확대, 차량 주인 김씨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경우 등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Super-Capacitor(에너지저장용 활성탄소전지)를 생산·수출하는 비나텍을 방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기업 '기 살리기'

### 탄소기업 비나텍 방문 애로사항 청취·근로자 격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작지만 강한 지역기업 기 살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17일 에너지저장용 활성탄소전지(Super-Capacitor)를 생산·수출하는 지역 감소 탄소기업인 비나텍(대표 성도경)을 방문,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직접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네 번째 일정이다.

비나텍은 지난 1999년 7월에 창립돼 현재 12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용 활성탄소전지 생산으로 지난해 180억원의 수출성과를 올리며 선도적 경영을 이끌어 온 중소기업이다.

또한 비나텍은 지역 나눔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어려운 곳에 환경정화활동과 김장 담그기, 식사제공

및 배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온 나눔 기업이기도 하다.

특히 비나텍은 국내 176건과 해외 16건 등의 지식재산권을 취득·출원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고전압 및 고온에서 구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초고용량 커패시터 개발에 성공해 수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업체로 평평이 나있다.

이를 통해 비나텍은 지난해 12월에는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 내실 있는 성장의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절도 용의자 검거 중 사망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경찰 검거과정에서 사망했다.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17일 경찰서 4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절도 피의자 이모(남·37)씨가 도주 중 자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산북동 A아파트에서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려하자 화재대피용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도주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경찰이 자수를 권유하자 옆집에 있던 흥기로 자신의 복부를 두차례 찔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2시 57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자전거 추월하다 사망사고 내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17일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김제시 만경읍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B(80)씨의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들이받아 외상성 쇼크로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사고 경위를 비취보면 피해자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조치를 했고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전주서 고교생 15명 식중독 의심증세

### 전북도 역학조사 착수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증세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7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15명의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날 체육대회를 맞아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 800여명이 급식 및 도시락을 먹었고 이 가운데 15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이다.

이에 도는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최초 15명의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34명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학생들과 해당 업무 종사자 등의 가검물 및 해당 학교의 음용수와 보존식 등을 채취해 보건환경 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역학조사의 경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며 "학생 개인위생과 급식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조리원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 부안 해상서 번사체 발견

부안군 변산면 B호텔 인근에서 60대 여성 번사체가 발견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오후 6시 20분쯤 부안군 변산면 B호텔 인근에서 지체장애인 오씨(60세, 서울거

주)의 번사체를 발견해 부안 H병원으로 안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호텔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관광객이 해상에서 번사체로 보이는 물체가 떠있던데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변산해양안전센터에서 순찰정을 급파하여 수습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순창 종합 사무기기

순창이 참 좋다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